

번호: OP-G-005					
제 목	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에 대한 의료이용률 차이 Differences in Medical Care Utilization Rates of 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-disabled				
저 자 및 소 속	은상준1), 홍지영2), 박종혁1), 김부경1), 김윤1), 김용익1), 신영수1) 1)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, 2)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ang Jun Eun1), Jee-Yong Hong2), Jong Hyock Park1), Bu Kyung Kim1), Yoon Kim1), Yong-Ik Kim1), Youngsoo Shin1) 1) Seoul National University, College of Medicine,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, 2) Konyang University, College of Medicine,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				
분 야	의료관리 [장애인]	발 표 자	은상준 전공의	발 표 형 식	구 연
<p>목적: 장애인은 이동성 장애, 낮은 사회경제적 소득과 같은 의료이용 장벽으로 비장애인보다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. 따라서, 장애인은 외래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입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를 규명하기 위해 일부 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(ACSCs)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외래 및 입원 의료이용률 차이와 장애여부가 이러한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.</p> <p>방법: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자료와 2003년 1월~12월 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및 급여자료에서 연령, 성, 지역(시군구), 보험료등급(1-100등급)을 기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1:2 대응한 자료를 구축하였다. 이 중 2001년 12월까지 장애등록한 장애인 862,219명과 비장애인 1,724,438명을 분석하였다. 의료이용의 지표질환은 미국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에서 예방질지표(prevention quality indicator)로 사용하는 ACSCs 중 성인천식, 소아천식, 고혈압, 당뇨의 급성 및 만성합병증, 탈수증, 울혈성심부전, 만성폐쇄성폐질환, 협심증, 소아위장관염, 세균성폐렴, 요로감염증을 선정하였다. 예방질지표는 적절하게 외래를 이용할 경우 입원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ACSC의 입원율로 지표값이 낮을수록 외래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을 의미한다. 이 12개 지표질환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환자 100인당 외래이용건수 및 입원건수를 비교하였고, 장애여부가 의료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.</p> <p>결과: 환자 100인당 외래이용건수는 협심증, 성인천식, 울혈성심부전, 당뇨의 급성 및 만성합병증, 고혈압에서 장애인이 0.81배~0.97배 낮았으며($p < 0.05$), 나머지 질환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환자 100인당 입원건수는 모든 지표질환에서 장애인이 1.07배~1.91배 높았으며, 당뇨의 급성합병증을 제외하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($p < 0.05$). 장애여부가 의료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, 외래 의료이용의 경우 모든 지표질환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OR은 0.39~0.72였고, 입원 의료이용의 경우 협심증을 제외한 11개 지표질환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OR은 1.29~2.21이었다.</p> <p>결론: 대부분의 지표질환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외래 의료이용 가능성이 낮았고 입원 의료이용 가능성이 높았다. 이는 장애인이 외래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여, 예방가능한 입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.</p>					